

# 2014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(제2차)

## 1. 회의 개요

- 일 시 : 2014. 1.16(목) 16:00~17:50
- 장 소 : 호암교수회관 메이플룸
- 참 석 : 위원 9명 전원 참석
  - 외부전문가 및 동문 : 김재식(위원장), 양호경(부위원장), 조춘 위원
  - 학교대표 :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재정전략실장
  - 학생대표 : 주무열, 정주희, 고창원 위원

## 2. 회의 안건

- 2014학년도 등록금 책정(안) 심의

## 3. 전차 회의결과 보고 : 예산과장

위원장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위원들의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접수함

## 4. 회의 내용

- 안건 및 보고사항 : 예산과장, 장학복지과장
  - 학생위원 요구사항 처리 현황
  - 2014년도 법인회계 예산편성(안)
  - 2014학년도 등록금 책정(안)
  - 이월금 및 장학금 운영 현황
- 회의 내용
  - 등심위 위원 9명 중 7명 참석에 따라 회의 개최
    - 학생처장 16:14 입장
    - 기획처장 16:34 입장
  - 학생측 위원이 회의내용 속기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학생 참관 및 배석을 위원장에게 요청하였고, 논의 결과 학교측 위원이 모두 참석한 후 재차 논의하기로 함

○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

- 학생측: (학생위원 요구사항 처리 현황 보고 중)항목별 자료는 전년도에 제공을 합의하였고, 올해도 준비한다고 하였는데 제공이 안 되는 이유는?
- 학교측: 예산에 대한 합의였음. 결산은 재무과에서 담당하므로 당시 협의되지 않았음. 재무과에서 작성이 가능한지 검토하기로 하였으므로 작성 가능 여부를(시기 포함) 확인하여 보고하겠음
- 학생측: (법인회계 예산편성안 보고 중)인건비가 올해 145억원 불용된다고 되어있음. 인건비가 매년 불용되고 있지 않은지?
- 학교측: 교원 정원과 충원율 차이로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. 2014년도에는 출연금 총액편성에 따라 교원 충원율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책정함으로 불용액이 줄어들 것임
- 학생측: (2014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보고 내용 중)학교에서 제시한 등록금 인상안은 국가유형장학금을 고려할 때 논리적이지 않음
- 학교측: 대학 재정에서 인하의 영향은 지속적이지만 인하에 따른 혜택은 한번뿐임. 국가장학금 보전 혜택이 당해 연도에 한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장학금 확충을 전제로 한 인상안이 차후 동결을 가정하더라도 대학 재정과 장학금 운용에서 효율적임
- 학생측: 대학에서 장학금 확충 안을 계획하면서 인상안을 내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음
- 학교측: 장기적 대학 재정 안정화 관점에서 인상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함임
- 학생측: 캠퍼스 공동체 차원에서 인상은 실익이 없음. 등록금 인하시 올해는 장학금 확충의 좋은 기회라고 판단됨
- 학교측: 국가정책이 항구성이 있는가를 고민해야함. 국가장학금 지원이 한시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현재의 예산수입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움. 등록금에 대한 트렌드도 변화할 필요가 있음. 인상이 필요할 때는 인상할 수도 있어야함

- 학생측: 장기적 문제의식에는 동의하나 단기적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음
  - 발전기금 전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설명 필요
  - 기성회회계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월금 규모를 볼 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며, 불용액은 털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등록금 인하 요인임
- 학교측: ‘이월금 운영 현황’ 설명
- 학교측: 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설명
  - 발전기금은 목적을 지정하는 지정기부금이 대부분임. 지정기부금은 기부자가 지정한 목적대로 집행하며 요즘은 장학기금과 건축기금이 주류를 이룸
  - 발전기금에서 대학을 위한 재량사업은 지정기부금의 이자수익 일부(지정 기관과 배분)와 목적을 지정하지 않은 소액의 기부금으로 운영하며, 각 기관의 요청과 발전기금 이사회 심의·의결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각 기관에서 발전기금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예산이 집행됨
  - 법인회계에 전입되는 예산은 이 재량사업 예산의 한 부분임
  - 금년에는 저금리에 따른 수익률 저하로 이자수익의 기관 배분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했고, 목적을 지정하지 않은 기부금의 감소로 발전기금 재단 운영비와 발전기금에서 서울대 각 기관 사업지원 예산으로 직접 편성하고 집행하는 계속사업은 반영이 되나 용도 지정을 하지 않고 법인회계에 전입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상황임
- 학생측: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같이 검토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음
- 학생측: 발전기금의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고유목적사업 중 사무국 업무추진비가 40억원 편성되어 있음. 투명성을 위하여 등록금에 준하는 심의가 되어야함
- 학생측: 등심위 학교측 위원이 발전기금 당연직 이사인 만큼 발전기금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은가?

- 학교측: 발전기금 재단의 당연직 이사의 역할은 발전기금에 대해 점검, 자문, 조언 등에 한정됨. 등록금심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료요구는 적절하지 않음
- 학생측: 교내장학금이 부산대의 절반 수준임. 서울대 장학금이 증가하는 것은 국가 노력임
- 학교측: 학생 개인에 대한 등록금 부담률이 중요함. 우리 대학은 부담률 최소화를 목표로 장학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
- 학교측: ‘장학금 운영 현황’ 설명
- 학생측: 자유전공학부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자연계열 등록금을 책정하는 것과 음악대학 작곡과는 실기수업이 없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
- 학교측: 앞으로 교육원가 연구를 통한 등록금 체계분석을 검토하겠음
- 학생측: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학생측 기록원과 배석 및 참관 허용 요구
- 대학측: 대학측 배석은 업무설명을 위한 불가피함이 있음  
 <논의 끝에 학생 기록원 1명 배석을 허용하기로 함>  
 <회의 중 등심위 운영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에 대해 학생위원을 제외한 전 위원이 싸인을 함>

#### 4. 심의 결과

- 차기회의 결정 : 2014. 1. 21.(화) 16:00